

오창록 8번째 한라장사 등극

영암군민속씨름단 소속...해남장사씨름대회서 김민우 꺾고 올해 2관왕

오창록(27·영암군민속씨름단)이 또 한 번 한라급(105kg 이하) 정상에 올랐다.

오창록은 지난 30일 해남군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1 해남장사씨름대회' 한라장사 결정전(5전 3승제)에서 김민우(수원시청)를 3-1로 물리쳤다.

2월 설날 대회에서 올해 첫 우승을 차지한 오창록은 이로써 올 시즌 2관왕을 달성하며 통산 8번째 한라장사 꽃가마를 탔다.

16강에서 이효진(수원시청)을 2-0으로 꺾은 오창록은 8강에서 최정훈(태안군청), 4강에서 정상호(제주특별자치도청)를 상대로 단 한 점도 내주지 않고 결승에 올랐다.

동갑내기인 김민우와 맞대결에서 오창록은 연속 들배지기로 2-0을 만들어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진 세 번째 판에서 김민우가 밀어치기로 한 점을 따라붙었지만, 오창록은 흔들림 없이 네 번째 판 시작 후 2초 만에 왼배지기를 성공해 우승을 확정했다.

영암군민속씨름단 김기태 감독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다. '제2의 김기태'로 불리는데, 저보다 뛰어난 선수가 됐으면 한다"며 "고질적인 어깨부상에 시달리면서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창



오창록(영암군민속씨름단)이 30일 전남 해남군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1 해남장사씨름대회'에서 한라장사에 등극했다. /연합뉴스

록은 워낙 신체 조건이 빼어나기 때문에 컨디션을 꾸준히 유지하고 잔부상만 없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인단 286명 잠정결정

오늘 후보 등록 마감...이강근·전갑수 후보 등록

광주시체육회장을 선출할 선거인이 286명 선에서 정해졌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광주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5차 위원회를 열고 선거인 후보자 명부 및 선거인 수를 잠정 결정했다.

애초 선거인 후보자 명부에 391명이 등재됐으나 무자격 및 중복자 105명을 제외하고 286명을 선거인수로 정했다. 이에 따르면 종목단체 선거인 181명, 구체육회 선거인 105명이다.

시체육회는 대한 체육회에 이같은 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 지난 30일 선거인 추첨을 마쳤다. 하지만, 3일까지 선거인 명부 이의신청 및 검증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최종 인원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부터 시작된 체육회장 출마 후보 접수에는 이강근, 전갑수 후보가 등록했다. 후보접수 최종 마감일은 3일이다. 광주시체육회장 선거는 김창준 전 회장의 사퇴에 따라 치러지며, 오는 13일 선거가 실시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 박가인, 종별태권도선수권 은메달

호남대학교 태권도경호학과 박가인(1년·사진)이 2021년도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73kg급에서 은메달을 수상했다.

박가인은 지난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안동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여자부 -73kg 거투기 부문 결승에서 8-9로 역전패,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가인은 시종일관 우세한 경기를 펼쳤으나 마지막 20초를 남겨두고 몸통 득점을 허용, 금메달을 놓쳤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동은 데뷔 시즌 2번째 대회만에 우승

KPGA 군산CC오픈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에 '대형 신인'이 등장했다.

김동은(24)은 2일 전북 군산의 군산컨트리클럽(파71·7124야드)에서 열린 KPGA 코리아투어 군산CC오픈(총상금 5억원)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3개를 묶어 1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 합계 6언더파 278타를 기록한 김동은은 2위 박성국(33)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코리아투어 데뷔 시즌 2번째 대회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1억원이다.

2019년 국가대표를 지낸 김동은은 그해 호심배 아마추어 선수권을 제패했고, 2019년 11월 KPGA 프로에 입회했다.

지난해 아시아투어 시드를 먼저 얻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KPGA 2부 투어에서 주로 활약했다.

지난해 KPGA 코리아투어 웰리파잉 토너먼트를 공동 4위로 통과, 올해 신인으로 KPGA 코리아투어에 뛰어들 김동은은 신인 자격으로 나온 두 번째 대회에서 챔피언 자리까지 올랐다.

지난달 2021시즌 개막전으로 열린 제16회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에서는 공동 44위에 올랐다. KPGA 코리아투어 역대 최고 성적은 지난해 제36회 신한동해오픈 공동 11위다.

키 178cm에 몸무게 72kg의 늘씬한 체격에 비거리 300야드의 장타, 깔끔한 스윙 동작과 잘생긴 외모 등을 두루 갖춘 김동은은 앞으로 코리아투어의 '스타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신인상 포인트 300점을 받은 김동은은 이번 시즌 신인상 부문에서도 단숨에 1위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3라운드 때 평균 풍속이 초속 6.5m로 강하게 부는 등 나을 내내 바람 때문에 선수들이 고전했다. 언더파 점수로 대회를 마친 선수가 7명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2일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PGA 군산CC 오픈 최종라운드 2번 홀에서 김동은이 세컨 아이언 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활샷' 김효주 짜릿한 역전승

최종라운드서 5타 차 뒤집어 5년 3개월 만에 LPGA 우승

'천재 소녀' 김효주(26)가 5년 3개월의 침묵을 깨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네 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김효주는 2일(한국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클럽 뉴 탄종 코스(파72·6740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총상금 16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 쓸어 담으며 8언더파 64타를 쳤다.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를 기록한 김효주는 공동 2위 해나 그린(호주)을 1타 차로 따돌리고 대회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가 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16년 2월 1일 퓨어실크 바하마 LPGA 클래식 이후 5년 3개월 만이다.

김효주는 3라운드까지 공동 8위였다. 단독 선두였던 린시위(중국)에게 5타 뒤져있었다.

초반은 챔피언조에 속한 박인비(33), 린시위, 그린의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김효주가 무결점 플레이로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김효주는 날카로운 아이언샷으로 버디 기회를 만든 뒤, 깔끔한 퍼팅으로 버디에 성공하며 타수를 줄여내며 선두 자리를 빼앗았다.

이날 김효주는 페어웨이를 한 번만 놓쳤고, 그린 적중률은 88.9%(16/18)에 달했다.

5번홀(파5)과 6번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은 김효주는 8번홀(파5)과 9번홀(파4)에서도 연속 버디를 적어냈다.

김효주는 14번홀(파4)과 15번홀(파3)에서도 버디 행진을 벌이며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그런데 그린에 14번홀에서 샷 이글을 넣어 김효주와 공동 선두가 됐다.

김효주는 더 달아나지 못하고 마지막 18번홀(파4)을 파로 마무리했다.

그린은 16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으며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우승을 눈앞에 둔 그린은 스스로 흔들렸다. 그



김효주

린은 17번홀(파3) 보기로 다시 김효주와 공동 선두가 됐고, 18번홀에서도 보기를 적어내 김효주에게 우승을 내줬다.

박인비는 이날 2타를 줄이고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로 공동 3위를 거뒀다. '슈퍼 루키' 페티타와타나기(태국)와 첫 우승을 노렸던 린시위도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유소연(31)은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로 6위에 올랐다.

전인지(27)는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로 리디아 고(뉴질랜드) 등과 함께 공동 7위로 대회를 마쳤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26)은 공동 24위(4언더파 284타), '디펜딩 챔피언' 박성현(28)은 공동 57위(5오버파 293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박현경 메이저대회 2년 연속 제패

KLPGA 광주 출신 김우정 2위

박현경(21)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이저대회 크리스 F&C KLPGA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에서 2년 연속 우승했다.

박현경은 2일 영암군 사우스링스 영암 카일필립스 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를 묶어 2타를 줄인 끝에 4라운드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정상에 올랐다.

작년 이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던 박현경은 생애 첫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며 KLPGA 챔피언십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찍었다.

1978년 창설돼 한국 여자 프로 골프 대회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KLPGA 챔피언십에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것은 1980~1982년 3년 연속 우승한 고(故) 구옥희 이후 39년 만이다. 우승 상금 1억8000만원을 받은 박현경은 단숨

에 상금랭킹 1위(2억669만원)로 올라섰고 대상 포인트에서도 70점을 보며 선두(104점)에 나섰다.

조아연(21), 임희정(21), 이소연(22) 등 데뷔 동기들이 8승을 합작한 2018년 루키 시즌에 혼자 우승이 없었던 박현경은 메이저대회 2승 고지에는 맨 먼저 오르며 KLPGA투어의 새로운 강자로 우뚝 섰다. 지난해 7월 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 제패에 이어 통산 3승째다.

박현경은 강풍 속에서 치러진 이 대회에서 나흘 동안 한번도 오버파 스코어를 제출하지 않는 유일한 선수다.

김지영은 2016년, 2018년에 이어 KLPGA 챔피언십에서만 세번째 준우승이다.

김우정(23)이 1타를 줄여 김지영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작년 9월 같은 코스에서 열린 팬텀 클래식에서도 공동2위를 차지한 바 있는 김우정은 사우스링스 영암 카일필립스 코스와 좋은 인연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박현경이 2일 영암 사우스링스영암CC에서 열린 '크리스 F&C 제43회 K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에 입맞춤하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비와 당신의 이야기
2관	내일의 기억
3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
4관	비와 당신의 이야기
5관	미나리
6관	비와 당신의 이야기
9관	더 스파이
7관	세네카를
8관	세네카를

극장만 바다 탐험대 육포넷 · 불의 고리 대륙발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어른들은 몰라요, 자살아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심규선, 달의 뒷면처럼 외로웠던 우리

일시: 2021.05.28.(금)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4



GAC 기획공연 포커스 매직드로잉 가족극 <두들림>

일시: 2021.05.11.(화) 14:00,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3